

1980

디자인진흥원사

- 창립 10주년 기념 산업디자인 세미나 개최
- 『디자인·포장』 50호 발간
- 김희덕 이사장 아시아포장연맹 제8대 회장 선출
- 전두환 대통령 '포장기술향상' 지시

한국 디자인사

- 브르노 국제그래픽디자인 비엔날레 초청작가 지명 (김교만, 김현)
- 『포름』 창간
- 삼성전자 CIP 도입

한국 사회사

- 5·18 광주민주화운동
- 파리조약 가입
- 언론기관 통폐합
- 국내 컬러TV 방영 시작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디자인 시책:
디자인 정책

1980년대로 접어들었지만 수출품에 대한 포장은 여전히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는 1980년 9월 1일, 극심한 사회적 혼란 속에 제11대 대통령이 된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 직후 ‘포장 기술 향상’을 지시한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대한민국 역대 정부에서 디자인은 경제와 맞물려 항상 정책 개발의 주요 대상이었다. 이러한 흐름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디자인 정책의 흐름을 알 수 있다.

광복 후 이승만 정부의 제1공화국은 6·25전쟁을 겪으면서 통일과 경제 안정이 가장 시급했기에 문화 및 디자인 분야에 힘을 쏟을 여력이 없었고, 5·16혁명으로 1년도 채 버티지 못한 제2공화국은 경제적 빈곤과 정전 불안으로 제대로 정책을 펼 기회조차 없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의 시작인 제3공화국(1961-1972)에서는 1962년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설립, 수출진흥위원회 설치, 신상품 개발 및 신시장 개척시 독점 수출권 부여, 수출진흥확대회의 개최 등 수출 진흥을 위한 시책들이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동시에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실시했고, 수출 신장을 위한 무역 정책을 비롯해 재정·금융 정책, 관세 정책 등 모든 분야를 지원했다. 1962년 3월 20일에는 「수출진흥법」을 제정·공포해 국내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했다. 이러한 직접 지원책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수출은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중반기인 1963년부터 급격하게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다 1963년 말 외화 부족으로 인해 국가 경제는 파산 국면에 들어섰다. 이때부터 국가 경영의 기본 전략을 수출 제일주의로 전환, 1964년 박충훈을 상공부 장관으로 임명해 수출 1억 달러 목표를 세웠고, 그 결과 1년 만에 1억 7,000만 달러를 달성해냈다. 이에 힘입어 1965년 대통령 참석하에 청와대 수출진흥확대회의가 열렸다. 월별, 품목별, 나라별 수출 실적과 신규 상품에 대한 계획이 논의됐고 이 회의에서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의 설립과 해산,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설립 등 한국 디자인사에서 굵직한 사건들이 결정됐다.

유신헌법에 의해 대통령이 삼권을 장악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제4공화국(1972-1979) 시기에는 철강, 비철금속, 조선, 전자, 화학, 기계 등 6대 중화학공업 중심을 하는 제3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추진됐다. 1972년에는 1980년까지 10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는 장기 수출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매월 청와대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포장과 디자인의 개선을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관계 기관을 방문해 격려하는 등 수출 상품의 고급화를 위한 디자인과 포장 개선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 상공부 관계자들과 정책 결정자들은 이를 인식해 디자인 측면에서 재빨리 성과를 내고자 했고 이는 곧바로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주요한 시책들로 이어졌다.

사회 혼란과 경제적 위기 속에서 출범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제5공화국(1981-1988)은 저물가, 저금리, 저환율의 3저 정책과 부동산 투기 억제 등 안정 우선 정책을 추진했다. 내수 경제의 침체와는 달리 국제 사회에서는 산업 발전과 개방화 바람이 불었고 이러한 흐름은 한국 디자인계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민관 구분 없이 선진국형 외형과 생활 습관, 질서 의식을 갖자는 캠페인을 펼쳐나갔다. 앞서 말했듯 전두환 대통령은 취임한 해에 포장 기술 향상을 지시한 데 이어 1983년에는 디자인산업 육성을 지시하기도 했다. 수출 다각화와 수입 자유화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기 위함이었다. 또한 이 시기 개최한 1986

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은 디자인 분야가 급성장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1990년 **문화부가 신설되는 등 문화 관련 각종 규제가 폐지되고 예술 지원 정책이 활성화되었으며**, 1991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등이 수립되었다. 디자인 진흥 사업의 초점이 기업 중심에서 범위를 확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 확산에 힘을 쏟기 시작한 것은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1993-1998)가 출범한 이후의 일이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은 **‘세계화’** 키워드로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에 대처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디자인 정책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디자인 경쟁력을 갖추려는 노력이 강화되었다.³⁰

1996년 6월 국무총리 소속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세계산업디자인대회 등 글로벌 디자인 행사 유치, 코리아디자인센터 설립, 디자인 교육 혁신 등 21세기 한국 디자인 산업을 세계 일류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디자인산업 세계화 방안’ 보고서를 채택했다.

지식 정보와 문화 산업을 강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1998-2002)는 IMF 체제와 세계화 및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신지식이라는 키워드를 내놓았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문화 정책 기조로 과거 정권처럼 통제나 억제가 아닌 육성과 지원을 통해 문화 산업을 일으키고자 했다. 디자인이 지식기반 산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이다. 디자인 정책 면에서는 정부 출범과 동시에 디자인산업의 육성을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선정, 디자인 정보 체제를 구축하고, 우수 디자이너를 양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한국디자이너대회 ‘어울림’**에 참석해 “디자인은 제2의 기술 개발이요, 고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굴뚝 없는 공장”이라며, “지금 우리 상품 대부분은 아직도 규격화된 공업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디자인 개발을 등한시하고 있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디자인을 바꾸니 수출의 길이 보인

다는 수출 일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³¹ 이라고 디자인 혁명으로 디자인 경제 르네상스를 일으킬 것을 당부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2003-2007)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디자인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2003년 청와대에서 **‘참여정부 디자인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해 향후 5년간의 디자인산업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세웠다. 이때 거론된 것이 디자인산업의 창출과 육성, 산업의 디자인 혁신역량 강화, 국제 디자인 허브화 및 동북아 협력 강화, 지역의 디자인 혁신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잠재 인력 활용, 디자인 문화 확산 등이다. 2004년에는 디자인 전문 인력 및 전문회사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³²

이명박 정부(2008-2013)는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품격 있는 문화국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성과 효율성을 중시했다.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의 3개 기본방향은 ‘문화로 행복한 국민’, ‘소프트웨어가 강한 창조문화국가’, ‘문화로 더 큰 대한민국’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되는데, ‘문화로 행복한 국민’은 국민의 품격 있는 문화생활을 강조하며, 국민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손쉽게 차별 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체험할 수 있음으로써 국민 모두가 문화적 삶과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소프트웨어가 강한 창조문화국가’는 감성, 창의성, 디자인과 같은 문화적 요소로 지역창조기반 경제를 창출한다는 뜻이다. ‘문화로 더 큰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한국문화를 상정한다.³³

박근혜 정부(2014-2017)는 출범과 함께 ‘문화 융성’을 국정 기조로 문화, 감성,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삼는 창조경제를 제창하였다. 이때 ‘창조경제’는 인간의 감성, 창의성, 상상력, 개인의 경험에 근거한 문화적 소프트파워가 국가 경쟁력과 성장의 핵심이 되는 경제 패러다임을 가리키는 것이었다.